

project

# 설화수 북촌

## Sulwhasoo Flagshipstore Bukchon

자료 및 사진 제공\_ (주)다원엔컴퍼니

지난 '21.10월 서울 북촌에 대표브랜드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북촌이 오픈하였다. 3년의 기다림과 브랜드 관계자, 건축가, 조경설계사,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소통과 코디네이션을 토대로 구축된 공간이다. 설화수 북촌은 한옥과 양옥을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부합하는 플래그십스토어로 설계되었는데 설계는 원오원 아키텍츠에서 진행하였다.

실내건축공사는 (주)다원엔컴퍼니가 PM로 참여하여 진행했는데, 건축가의 설계디자인 의도를 최대한 구현하면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와의 긴밀한 소통, 현장 진행사항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고 및 협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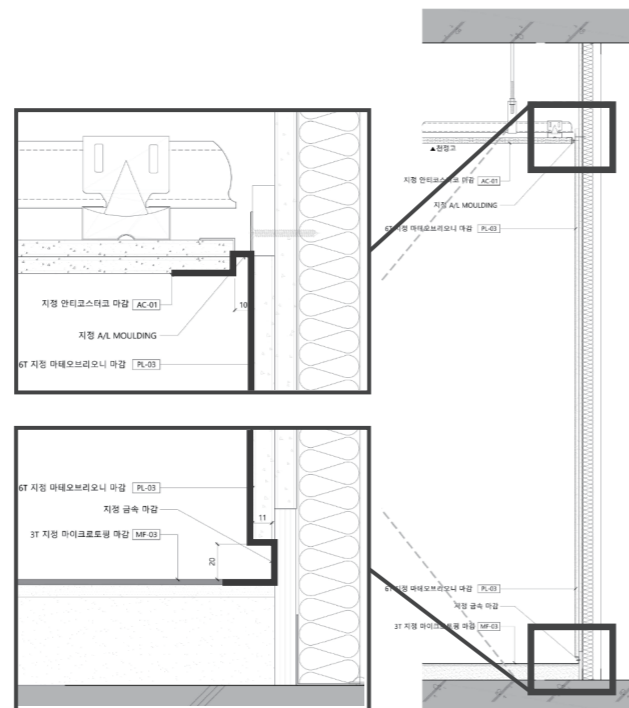
북촌점 구축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사전 목업Mock-up을 원칙으로 공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메인 벽체 및 바닥 마감에 비롯해 계단난간, 디딤판마감 등의 공정이 목업에 대한 검수 승인후 본작업을 진행하고, 공사후에는 현장소장급 5명으로 이루어진 자체 품질점검팀을 운영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설화수 북촌의 내부 벽과 천장 마감은 흙미장(마테오브리오니), 바닥은 컬러콘크리트(마이크로토폭)로 마감이 진행되었다. 사전 목업에서 크랙 발생 지점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디테일 및 보양 시공이 제안되었는데 벽체와 연결되는 도어프레임 부분의 반턱이음 디테일, 천장 및 바닥과 만나는 경계부분에 재료분리 디테일 제안이 그 사례이다. 또한 컬러콘크리트로 마감하는 바닥의 경우 타공정과 동시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구간당 2주간의 일정을 확보한 가운데 공기준수에 무리가 없도록 대응하였다.

타공정 진행 시 발생가능한 간섭사항을 찾아내 사전 조율함으로써 시공품질 확보와 공기준수가 가능했던 이 현장에서 인테리어 PM의 역할은 가구, 자재, 조명 등의 코드 및 퀄리티 컨트롤러까지 이어졌다. 한옥과 신규 증축공간이 중정을 통해 만나고, 비어있으므로 그 매력을 발산하는 한옥이란 공간에서 가구는 전통의 현대적 분위기를 구현하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기존 한옥의 고재(기둥, 보, 초석)와 신재(하부 석재 기단, 유리창호, 창호틀)의 조화 속에 문화재 수리가능 전문가 및 장식명장과의 협업으로 자개, 도어 등의 복원을 진행하고 조명기구는 내부의 소켓이나 전선 부식 점검 등을 체크하여 재조립 후 목업과 조도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용하였다. 설화수 복원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를 한옥과 양옥, 자연친화적 소재와 헤리티지 자재로 공간에 담아낸 사례이다.



디테일 제안사례\_ 재료분리대

